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 설교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은 적 있나요? 부모님은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말이예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열두 살 때 부모님과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사흘 동안 애타게 찾다가 성전에서 울벌 교사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발견했죠. 부모는 놀라고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사명을 깨닫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공부, 진로, 친구 관계에서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왜 반대하실까?”, “나는 친구 관계가 중요한데 부모님은 성직만 강조하실까?” 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어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곧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며,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 예배 순서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여호와께 돌아가자 ..... 다 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2:41~52절 ..... 다 같이

설교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 ..... 설교자

말씀나눔 ..... 다 같이

합심기도 ..... 다 같이

축복기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 찬양 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신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나는 언제 하나님의 집을 더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